

취업기혼여성이 인지한 경제적 자원 기여도와 성역할태도가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arried Working Women's Economic Resource Contributions and Sex-role
Attitudes on Couples' Decision-making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 김현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박정윤***

Dept. of Child and Youth Studies, Chung Ang Univ.
Kim, Hyunjin

Dep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
Professor Park, Jeoung Y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wives' economic contributions and sex-role attitudes on couples' decision-making for use in family education and to improve stable couple relationships. This study targeted 286 married women who have a child or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lmost half of the participants showed that their couple decision-making, economic resource contributions and sex-role attitudes were husband-dominated. Additionally, the participants' most modern sex-role attitudes were toward gender stereotypes, though the most conservative attitudes were toward women and men's household lives.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between husband-dominated and equality couples were age, education level, spouse's average income and resource evaluation; related, age, education level, spouse's average income, contribution toward household management and the occupational life of the woman were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between husband-dominated and wife-dominated couples. This study also revealed the variables that affect couples'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졸업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김현진

*** 교신저자 : 박정윤(pjy4838@cau.ac.kr)

decision-making, demonstrating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several variables in the approach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ndividual couples.

Key Words : 경제적 자원 기여도(economic resource contributions), 성역할태도(sex-role attitudes), 부부의사결정 유형(couple's decision-making type), 남편우세형(husband-dominated type), 아내우세형(wife-dominated type), 공동형(equality type)

I. 서론

부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원만한 부부관계는 가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부관계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역할, 권력 등 다양한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부권력은 부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부의 권력관계는 단순히 가정 내 절대적인 권한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유형을 토대로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하며 부부 갈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불공평성이나 불평등의 이슈는 결혼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 인식에 관여하며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장선녀, 2009). 즉, 부부권력은 결혼생활의 질과 만족감에도 영향을 주게 됨으로 부부권력과 이와 관련한 변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의 권력관계는 가정 내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다. 부부의 의사결정은 가족 내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Strauss, 1964). 또한 부부의 의사결정의 유형을 통해서 부부의 권력이 실제로 행해졌을 때 나타나는 가사분담, 부부의사결정 결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부 중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부부는 가족의 목표를 결정하고 가족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될

것인지 계속해서 결정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사결정은 부부권력을 반영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균형적 의사결정은 가족 내 평등한 가치관의 수립과 부부생활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 향상,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김민녀·채규만, 2006).

부부의사결정 유형의 영향 변인으로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능력, 심리적·애정적 요인이 언급되고 있다(Rogers & DeBoer, 2001; LeBaron & Roberts, 2010). 그 중에서 경제적 능력은 부부의 의사결정 영향력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특히 부인의 소득의 증가는 가계수입의 증가와 부부 각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하며, 부부 관계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이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gers & DeBoer, 2001).

Bokek-Cohen, Peres & Kana zawa(2008)는 부인의 경제적 자원을 외부로부터 획득 된 수치화 가능한 권력으로 여기며, 객관적인 자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남편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를 낮추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인지하는 결혼만족도는 향상되고 균형 잡힌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의 권력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 때 부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는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인의 경제적 자원은 부인의 권력의 증가, 즉 부부의사결정 영향력 증가에 기여하며 이는 평등하고 균형 잡힌 부부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권력의 양상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원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부권력을 단편적인 차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경제적 자원 자체도 권력에 영향을 주지만 개인이 가진 경제적 자원이 가정 내에서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또, 부부권력은 경제적 자원 이외에도 개인적 매력, 심리적 요인, 사회적 규범 등 다양한 자원의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LeBaron & Roberts, 2010). 그 중에서 규범적 자원은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기대와 책임을 반영하고 있는 자원이다. 즉, 가족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문화적 기대와 규범에 비추어서 부부권력의 자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범적 자원 중 부부권력에 미치는 대표적 변인 중 하나는 성역할 태도이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부부들은 의사결정 시에 배우자를 배제시키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활용하는데 비해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부부는 평등적인 관계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Kingsbury & Scanzoni, 1989)는 연구결과는 성역할 태도가 부부권력을 파악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관계에서도 규범적 자원인 성역할태도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부권력과 관련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부부권력 또는 부부의사결정과 부부역할간의 관계 연구(문숙재·조성은, 1993; 손현숙, 1995), 부부의사결정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박은아·이정우, 2005), 부부의사결정 유형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전혜성·서미아, 2012; 이명신·김유순, 2016; 정소영, 2018)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공동형의 부부의사결정 유형을 취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부부의 권력구조가 언어적, 신체적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Gage & Hutchinson, 2006; Conroy, 2014),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Brezsnyak & Whisman, 2004)등

부부권력은 부부가 인지하는 결혼생활 전반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부부간의 역동과 갈등, 결혼만족감은 부부의 의사결정 또는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부권력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는 연구들은 수행되었으나 부부권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한 기혼여성이 자신의 경제적 자원 기여도, 성역할 태도, 부부의사결정 유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경향성과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부의사결정 유형별 경제적 자원의 기여도 인지와 성역할태도의 특성을 밝히고, 경제적 자원의 기여도 인지와 성역할태도가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부부간의 공평성과 평등에 대한 변인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고 균형적인 부부관계를 모색하게 하고 부부관계를 예측하게 하는 새로운 노력이 될 것이며, 부부의 결혼만족감과 안정감을 높이는 또 다른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사결정 유형·성역할태도·경제적 자원 기여도의 인지의 전반적 경향성은 어떠한가? 둘째, 부부의사결정 유형별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와 성역할태도의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인,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 성역할태도가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부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부부의사결정 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1980년대부터 꾸준히 부부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초기 연구들은 부부역할과 부부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윤숙현·문숙재, 1986; 문숙재·조성은, 1993), 부부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정우·장병옥, 1987)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후 부부의사결정과 생활만족도 또는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연구(손현숙, 1995; 이정우·정진희, 1998; 박은아·이정우, 2005)가 있다.

부부의사결정과 부부역할 간 관계는 부부역할 유형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주도권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문숙재·조성은, 1993), 부부간 의사결정이 공동형일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현숙, 1995; 박은아·이정우, 2005). 또, 부부가 평등적인 권력관계를 유지할 때 높은 결혼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권력구조가 균형적일 때 부부의 역할분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만족스러운 결혼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신과 김유순(2016)의 연구에서는 상호의존, 사랑 등 개인적 권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증가한다고 하였고 전해성과 서미아(2012)의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과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부부간 평등성과 결혼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부부권력 구조에서 성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Bulanda(2011)의 연구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자신의 권력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아내의 낮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부부권력의 분배는 성별과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결혼만족도와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과 양육에 관련한 연구(조희금·서지원, 2009)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았고, 30대의 젊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부부권력을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에는 남편의 거부장적인 태도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

에서도 규범적 자원인 성역할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Kulik(2002)은 부부 중 한사람이 부부관계를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면, 이는 부부갈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부부와 동거커플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부의사결정 유형 연구(Razzouk, Seitz & Prodigalidad, 2007)에서는 동거중인 커플이 결혼관계의 부부보다 부부의사결정을 할 때 더 평등한 유형으로 이루어짐이 밝혀졌다.

부부권력과 개인의 우울감 연구(Usher, Smith & Callands, 2008)에서는 부부의 권력관계를 불평등하게 인지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이 밝혀져서 부부갈등을 예측하게 하며,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Weigel, Bennett & Ballard(2006)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애정적·개인적 자원들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협상과정에서도 더 자신에게 우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나타냈다.

부부의사결정 유형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부부의사결정이 개인, 부과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된 반면 부부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경제적 자원의 양적 정도만이 아니라 자원의 기여도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규범적 자원 간 영향력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할 수 있으며 이들 변인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결혼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부부의사결정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선행연구에서 밝힌 부부의사결정 유형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학력, 연령, 소득, 결혼기간 등이 있었다. 먼저 학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의사결정에서 높은 협상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내의 권력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Xu & Lai, 2002). Hennon & Wilson (2008)의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의 경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남편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남편 우세형의 권력유형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반대로 부인에게 자신의 권력을 양보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령 역시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년기의 부부와 노년기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 및 결혼만족도 차이 연구에서, 중년기 부부에게는 연령이 의사결정에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노년기 부부에게는 부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형의 권력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2019; Faulkner, Davey & Davey, 2005). 그러나 또 다른 연구(Mistry et al., 2008)에 의하면 연령은 부부의 권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어 연령 변인에 관한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소득수준도 부부권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밝혀지고 있다. 조혜선(2003)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배우자보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고, 싱가포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Quek & Knudson-Martin, 2008)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본인의 소득과 직업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의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장려한다고 보고하였다. 이회정(1998)의 연구에서도 아내의 소득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직업적 지위는 부부의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하나라고 여겨졌으나(손현숙, 1995) 최근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인의 직업지위가 남편보다 높은 부부는, 가정의 재정과 관련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아내의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기연, 2000). 부부의사결정 유형에서 결혼기간의 영향력을 보면, 결혼 5년 미만의 부부에게서 부부권력에 대한 갈등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underer & Scheewind, 2005). 국제결혼 부부는 결혼기간에 상관없이 남성 우세형의 권력구조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공미혜·오세자, 2010).

부부의사결정에는 교육수준, 연령, 소득, 결혼기간, 직업적 지위의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각 변인별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부부의사결정 유형과 그 변인을 밝히는 최신 연구가 미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부부의사결정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경제적 자원 기여도

부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경제적 자원 기여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인의 경제적 자원 기여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ogers, 2004; Kaufman & Taniguchi, 2006; Fiske & Bderdahl, 200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아내의 경제적 자원 기여도가 높은 경우,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낮았고 아내는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Kaufman & Taniguchi, 2006).

국내 연구(임유경, 2007)도 유사하게 여성의 수입은 결혼생활의 행복을 크게 증가시키나, 기혼여성의 절대적인 소득 증가는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원 기여도가 증가하면 부부 갈등이나 이혼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Rogers, 2004).

김소영과 진미정(2016)은 아내의 임금 상승은 가사분담과 의사결정 상황에서 아내의 교섭력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활동 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아내의 소득과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연구(은기수, 2009)에서는 아내의 소득이 많을수록 아내 자신의 경제적 자원 기여도를 근거로 하여 원치 않은 가사노동을 회피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내의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혜진(2006)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소득이 남편보다 가구 기여도도 컸지만 남편이 우세한 위계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아내의 소득 향상과 경제적인 자원 기여도의 증가는 아내의 높은 결혼만족도를 예측하게 하고, 소득 증가는 부부권력 구조에서 아내에게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게 하는 요인이며, 부부 권력을 균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소득에 상관없이 여전히 가정에서는 남편 우세형인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상이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객관적 수입, 수입 정도만을 바탕으로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개인의 가계경제의 주관적인 기여도 인식은 다른 맥락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수입과 주관적인 경제적 기여도 인지를 포함하여 부부권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성역할태도

부부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성역할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사회의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엄격할수록 더 많은 부부갈등과, 불균등한 역할분담 및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인다는 공통점을 보였다(Tichenor, 2005; 조희금·서지원, 2009; 이철인, 2010). 남성은 여성보다 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성이 지닌 보수적인 사회문화적 인식과 기대는 부부권력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금·서지원, 2009).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남성 중심적인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배우자와의 권력구조에 있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Bulanda, 2011; 이성희·윤지영, 2018).

아내의 소득과 부부관계 만족 연구(이성희·윤지영, 2018)에서 아내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내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우울,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는데,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부부간 권력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취업주부들의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지고, 이는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낮춘다고 언급하였다.

취업모의 부부 권력구조에 대한 질적 연구(Tichenor, 2005)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은 자원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유지하며 남편을 가정의 총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역할태도는 다양한 연령대의 부부권력에 유의한 변인이었다. 김영혜(2004)의 연구에서 노인의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 참여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가사노동 참여에 더 적극적이며 균형적인 가사분담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미와 류연규(2016)는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아내의 취업여부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교육수준이 높고 아동기 취업모일수록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남편은 자녀유무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가 부부권력에 미치는 선행연구들은 연구가 미미하지만 부부가 권력구조를 불평등하게 인식하면 결혼생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되며, 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성역할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ughes & Waite, 2009; 이철인 2010). 성역할태도를 변인으로 설정하여 부부권력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은, 성역할태도가 여전히 규범적 차원에서의 권력이며 부부관계에 유의미한 관련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고 더 나아가 부부관계를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부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취업모가 인지하는 경제적 기여도와 성역할태도가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유자녀이며, 자녀양육기에 속한 취업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녀양육기는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정환경의 변화 및 자녀양육이라는 새로운 과업수행에 있어 부부간의 관계가 새로운 측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부부의 의사결정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유무가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녀양육기의 취업모로 설정하였다(김민녀·채규만, 2006). 조사대상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였고 근무시간은 통계청(2016)의 자료를 토대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부터 주 49시간 이상의 초장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앞서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문항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20명의 자녀양육기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토대로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3일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조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기혼여성을 편의표집하여 대면 조사와 우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였고, 온라인 조사는 학부모가 주 가입 대상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조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원자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98부의 자료를 수거하여 수거율은 93.1%이었으며, 그 중 성의없이 기재하였거나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286부를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구성

1)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총 8문항으로, 연령, 학력,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월 평균 가구 수입, 부인의 월 수입, 주당 근무시간, 직업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당 근무시간은 2016년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3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6시간 미만은 시간제 근로자, 36시간 이상은 전일제 근로자로 구분하였다. 직업유형은 2016년 한국표준 직업 분류를 기초로 하여 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 서비스 종사직,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 총 6가지의 직업군으로 범주화하여 포함하였다.

2)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

본 연구에서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는 취업주부가 현재 가계의 소비지출과 미래의 생활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정경제기여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홍주연, 2017).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는 Williams & Ness(1998)의 가족 자원 기여도 척도와 박미금과 계선자(1994)의 가정생활 영역 내용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강기정(1999)의 가정경제 기여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이며, ‘자원평가도’와 ‘가계관리 기여도’ 2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자원평가도’는 ‘우리 가정의 단기, 장기 목표달성’, ‘가정의 총소득 향상에’의 기여도를 9문항을 말하며, ‘가계관리 기여도’는 ‘식료품비(외식 포함)’, ‘광열수도비’ 등 현재 가계의 소비지출에의 기여정도에 관한 문항들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기여하지 못하다’를 1점으로, ‘많이 기여한다’를 5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가 인지하는 경제적 기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제적 기여도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979였다. 하위변인인 ‘자원평가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978 이었으며, ‘

가계관리기여도'의 신뢰도는 .966 이었다.

3) 성역할태도

성역할 태도는 남녀에 대한 개인의 감정·의도·생각을 의미함과 동시에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 및 규범으로 정의한다(이정은, 2012). 성역할태도 척도는 Mason & Bumpass(1970)의 Sex-role Ideology Scale과 Osmond & Martin(1975)의 Sex-role Orientation Scale의 원척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신호정(2000)의 성역할태도 척도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 문항이며, 하위변인은 '여성 및 남성의 가정생활', '여성의 직업생활', '성고정관념'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및 남성의 가정생활'은 부부의 가정생활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의 직업생활'은 여성의 직업생활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며, '성고정관념'은 사회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고정관념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각 7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매우 아니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총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936이며,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여성 및 남성의 가정생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826 이었으며, '여성의 직업생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852, '성고정관념'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845로 나타났다.

4) 부부의사결정 유형

부부의사결정 유형은 부부가 가정 내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이 원하는 목표 혹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하위변인으로는 남편우세형, 아내우세형, 공동형이 있다(강현덕, 2005). 본 척도는 Szinovacz(1981)가 기초하고 이혜경(1986)이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큼인가?'를 묻는 부부의사결정 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제시된 문항들은 최종의사결정 시 남편, 부인, 공동 중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큰지를

문고, 남편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점, 공동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2점, 부인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3점을 주어 각 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총합을 의사결정 영향력의 점수로 하였다. 응답자가 응답한 점수는 최하 28점부터 최고 84점까지이며, 55점 이하는 남편 우세형, 56~66점은 공동형, 67점 이상은 부인 우세형으로 구분하였다(강현덕, 2005). 본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Cronbach α 값은 .890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총 28문항이며,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자녀교육, 경제생활, 기타생활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인 빈도 및 백분율,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부부의사결정 유형별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와 성역할태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1>와 같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30대 이상 40대 미만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0대 이상-50대 미만 38.5%, 50대 이상 8.8%, 30대 미만 7.3%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기혼 여성)의 평균의 연령은 39.81세,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42.20세이다. 교육수준은 본인(부인)의 학력수준은 대졸이 5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배우자(남편)의 학력수준 역시 대졸이 84%로 가장 많았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학력수준이 대졸인 경우가 많았지만, 배우자의 비중이 본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n(%)	
연령	30대 미만	21(7.3)	
	30대 - 40대 미만	130(45.5)	
	40대 - 50대 미만	110(38.5)	
	50대 이상	25(8.7)	
	평균	본인 39.81 배우자 42.2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본인 39(14.0) 배우자 2(1.0)	
		전문대학교 졸업	본인 73(26.0) 배우자 24(8.0)
	대학교 졸업		본인 165(58.0) 배우자 241(84.0)
		대학원 이상	본인 6(3.0) 배우자 19(7.0)
	자녀 수		1 명
		2 명	193(67.0)
3명 이상		20(7.0)	
평균 월 소득 (원)	가구 전체 소득	400만원 미만	8(2.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0(24.5)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0(28.0)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61(21.3)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42(14.7)
		800만원 이상	25(8.7)
		평 균	569,86
	본인 소득	150만원 미만	18(6.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86(30.1)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82(28.7)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14.0)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43(15.0)
		350만원 이상	17(5.9)
평 균	220.5		
평균 근로시간 (시간)	주 15시간미만	9(3.0)	
	주 16시간 - 주 36시간미만	77(26.0)	
	주 36시간 - 주 49시간미만	176(60.0)	
	주 49시간 이상	23(8.0)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수는 자녀가 2명인 부부가 6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명이 26.0%, 3명 이상이 7.0%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가정 전체 한 달 평균 수입은 570만원, 본인의 평균수입은 221만원이었다. 근로시간은 주 36시간이상 주

49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응답자가 6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주 16시간이상 주 26시간미만이 26.0%, 주 49시간 이상이 8.0%, 주 15시간미만이 3.0% 순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부부의사결정 유형 · 성역할태도 ·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 수준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관련변인인 부부의사결정 유형, 성역할태도,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남편우세형은 45.8%로, 의사결정 유형 중 가장 높은 결과 값으로 나타났으며 공동형이 33.6%, 아내우세형이 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취업기혼여성들은 부부의 의사결정에서 남편우세형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관련 변인들의 경향성

변인		n(%), M(SD)
부부의사결정 유형	남편우세형	131(45.8)
	공동형	96(33.6)
	부인우세형	60(20.6)
성역할태도	여성 및 남성의 가정생활	2.75(1.30)
	여성의 직업생활	3.02(0.97)
	성 고정관념	3.55(0.97)
전 체		3.11(1.08)

응답자들이 가진 성역할태도의 경향을 살펴보면 성역할태도의 전체 평균값은 3.11점(SD=1.08)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값은 중간값 구간보다 높아 연구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성고정관념은 3.55점(SD=0.96), 여성의 직업생활은 3.02점(SD=0.97), 여성 및 남성의 가정생활은 2.75점(SD=1.29)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인 취업 기혼여성의 가계에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값은 3.99(SD=1.12)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하위변인인 자원평가도 인지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4.00점(SD=0.12)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가장 높은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아내는 본인의 경제적 자원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 유지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4.06점(SD=1.19)이었다.

<표 3>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 경향성

변인		M(SD)
자원평가도 인지	우리 가정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 달성에	2.94(1.06)
	우리 가정의 경제적 안정 유지에	4.06(1.20)
	우리 가정의 총소득 향상에	3.77(0.98)
	우리 가정의 한 달 평균 저축액에	3.95(1.15)
	우리 가정의 자산증식에	3.54(1.07)
	우리 가정의 경제 환경 변화(소득감소, 실직 등)에 대비하는데	4.05(0.99)
	우리 가정의 노후자금 마련에	3.24(0.97)
	우리 가정의 여가생활을 위한 여유자금 마련에	2.99(1.28)
	우리 가정의 경제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3.57(0.91)
전 체		4.00(0.18)
가계관리 기여도 인지	식료품비(외식포함)	3.95(1.06)
	피복비(의복, 화장품, 악세서리, 신발, 세탁 등)	3.99(1.18)
	주거비(주택마련, 집세, 관리비 등)	3.95(0.98)
	광열수도비	3.99(1.17)
	교육교양오락비(공교육비, 사교육비, 들뜬비용 포함)	3.47(0.92)
	보건의료비	3.32(1.08)
	가구가사용품비	4.01(0.90)
	교통통신비(통신비, 차량유자비, 공공교통비 등)	3.76(0.91)
	기타 생활비(잡비 및 자유항목비 등)	3.98(0.97)
	전 체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 전체		3.99(0.12)

그 다음으로 아내는 소득감소와 실직 등 경제활동 변화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4.05점(SD=0.99)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본인의 경제적 자원이 한달 평균 저축액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였다(평균:3.95점, SD=1.15)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가장 낮은 3영역으로 응답자들은 가정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 달성에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M=2.94점, SD=1.06) 다음으로 여가생활을 위한 여유자금 마련이었고(M=2.99, SD=1.28), 가정의 노후자금 마련 순(M=3.24, SD=0.87)

이었다. 가계관리기여도 인지 하위변인의 총 평균값은 3.99점(SD=0.16)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은 3가지를 살펴보면 가구가사용품비 4.01점(SD=0.899), 피복비 3.99점(SD=1.179), 광열수도비 3.99점(SD=1.1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값이 가장 낮은 순으로는 보건의료비 3.32점(SD=1.082), 교육교양오락비 3.47점(SD=0.919), 교통통신비 3.76점(SD=0.914)으로 나타났다.

2.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별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와 성역할태도

1) 부부의사결정 유형별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

부부의사결정 유형별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의 하위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자원기여도 인지(F=4.193, p<.01)와 가계관리 평가도 인지(F=3.100, p<.01)가 부부의사결정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남편우세형 집단에서 아내의 자원기여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 자신의 경제적 자원이 가정경제의 미래생활 향상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관리평가도 영역에서의 점수가 높았는데 아내우세형 집단의 아내들은 자신의 경제적 자원이 가계소비지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부의사결정 유형별 성역할태도

부부의사결정 유형별 성역할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부의사결정 유형별 성역할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부의사결정 유형별 성고정관념(F=10.473, p<.01), 여성의 직업생활(F=11.372, p<.01), 여성 및 남성의 가정생활(F=13.871, p<.01)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남편우세형의 집단의 아내들은 성고정관념, 여성의 직업생활에 대한 태도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근대적이었다. 아내우세형 집단은 여성과 남성의 가정생활 영역에서 다른 집단보다 근대적 성역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우세형의 집단에 성고정관념 영역과 직업생활 영역에서

<표 4> 부부의사결정유형별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식

부부의사결정유형	자원기여도 인지		F (Scheffé)	가계관리기여도 인지		F (Scheffé)
	평균(SD)			평균(SD)		
남편우세형(a)	3.41(.63)	4.193** b, c < a	남편우세형(a)	3.26(.45)	4.193** b, c < a	
공동형(b)	3.15(.75)			3.01(.33)		
아내우세형(c)	3.19(.57)			3.27(.59)		

**p<.01

<표 5> 부부의사결정유형별 성역할태도

독립변수	성고정관념		여성의 직업생활		여성 및 남성의 가정생활	
	평균(SD)	F (Scheffé)	평균(SD)	F (Scheffé)	평균(SD)	F (Scheffé)
남편우세형(a)	3.49(.67)	10.473*** b < a, c	3.45(.41)	11.372*** c < a < b	3.46(.77)	13.871*** c < a < b
공동형(b)	3.24(.55)		3.66(.39)		3.15(.80)	
아내우세형(c)	3.45(.41)		3.43(.46)		3.66(.73)	

***p<.001

근대적 성역할관이 나타난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다른 양상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이 30대 후반이고 대졸 이상의 취업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생활 내에서 의사결정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양성평등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여성들이 남편중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관련 변인들이 부부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사결정 유형의 하위변인 중 남편우세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 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제적 기여도,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실시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Nagelkerke R² 값이 .472로 도출되었고, 사후 테스트를 통해 분산팽창계수(VIF) 수치를 살펴본 결과 3점 이하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 본인 및 배우자 교육수준, 본인 및 가구 전체 월평균소득은 연속변수로 설정하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전일제와 시간제개변수로 코딩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6>은 준거집단을 남편 우세형으로 설정하고, 남편 우세형과 공동형을 구분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자원평가도가 공동형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였다. 연령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32%의 확률로 공동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b=.283, p<.05), 교육수준에서 본인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 증가할 경우 248.8%의 확률로 공동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b=2.244, p<.01). 월평균소득은 가구 전체의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80.4%의 확률로 공동형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b=.882,

<표 6> 관련변인들이 부부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공동형			아내우세형		
		b	s.e.	Exp(b)	b	s.e.	Exp(b)
연령		.283*	1.390	1.323	.534*	1.036	1.534
교육수준	본인	2.244**	1.115	3.488	1.508*	.123	2.661
	배우자	.152	.130	1.164	.370	.115	1.448
자녀수	1명	.784	.000	1.512	1.302	.932	1.801
	2명	-.039	.389	.810	-.473	.672	.548
	3명이상	-.983	1.394	.615	-.392	.893	.830
평균소득	본인	-.112	.061	.895	.988**	.102	2.014
	가구 전체	.882**	.312	1.804	.447	.194	1.447
근로시간	전일제	-.241	.056	.950	.200	.377	1.410
경제적 자원 기여도인지	자원평가도 인지	3.007**	.920	3.956	.392	.492	1.468
	가계관리기여도 인지	.993	.283	1.918	3.282**	1.239	4.677
성 역할 태도	여성 및 남성의 가정생활	-.378	.553	.573	-.291	.089	.470
	여성의 직업생활	.902	.048	1.720	3.030*	1.150	4.132
	성 고정관념	.389	1.044	1.229	-.387	.720	.741

Nagelkerke R²=.459

주: 종속변수의 준거집단은 “남편우세형”이다.

가변수화: 근로시간: 전일제(Full time)=1, 시간제(Part time)=0

$p < .01$), 자원평가도 인지는 한 단위 증가할 경우 295.6%의 확률로 공동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b=3.007$, $p < .01$). 남편우세형과 아내우세형을 구분하는 결과는 <표 6> 아내우세형에 제시하였다. 유의한 변인은 연령, 교육수준, 본인의 월평균소득, 가계관리기여도 인지, 여성의 직업생활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53.4%의 확률로 아내우세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b=.534$, $p < .05$), 교육수준은 조사대상자 본인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166.1%의 확률로 아내우세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b=1.508$, $p < .05$). 월평균소득은 본인의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101.4%의 확률로 아내우세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b=.988$, $p < .01$), 가계관리기여도 인지는 한 단위 증가할 경우 367.7%의 확률로 아내우세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b=3.282$, $p < .01$). 여성의 직업생활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313.2%의 확률로 아내우세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b=3.030$, $p < .0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내가 인지하는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와 성역할태도가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녀양육기에 있는 취업모 286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 성역할태도를 파악하고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부부 모두 대졸 이상이고 연령층에서도 30-40대로 비교적 젊은 세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부부의사결정 유형이 남편중심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아내 자신이 가계에 경제적 자원 기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권력이 평등하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음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나 기여도가 권력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취업 기혼 여성들이 권력의 불평등성 인지로 인한 결혼생활에 대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예측되며, 자녀양육기의 부부가 권력의 불평등성을 크게 지각하게 된다면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균형적인 역할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혼생활 전반에서 불만족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가족 내 의사결정이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조정이나 노력들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신혼 초기부터 공평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가족 내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녀 출산 등과 같은 가족의 변화에 맞추어 부부의사결정의 영역이나 양상을 조절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부부권력과 부부치료 연구(Gray, Baucom & Hamby, 1996)에서 공동형 부부권력 유형이 가장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패턴을 보인다는 선행연구(Gray et al., 1996)를 보았을 때, 평등한 권력은 부부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의사결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와 외부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부부의사결정 유형을 구분하는 공통변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교육수준과 연령이었다. 연령이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생애발달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중노년기로 전환은 성역할의 변화가 나타나고 남성의 여성성 증가와 여성의 남성성 증가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본다면 연령 증가에 따른 아내우세형이 우세한 것은 성역할의 변화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연령과 부부의사결정 유형의 관련성은 연령을 직접적 자원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남녀의 발달적 특성 변화와 연계된 결과로 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부부의사결정의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Xu & Lai, 2002)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연령·교육수준의 차이가 부부 권력 양상에 영향을 주게 될 때 한 쪽 배우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무시될 수 있고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면 부정적 상호작용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Tschann et al., 2002). 그러므로 부부권력의 균형은 부부 개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부부의사결정 유형은 부부의 연령 증가에 따른 발달적 변화가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과 다른 양상의 부부의사결정 유형으로 변화 가능하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연령별 부부의사결정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거나, 종단적 분석으로 부부의사결정 양상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시간적 흐름이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남편우세형을 기준으로 공동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은 자원평가도 인지와 가계관리 기여도 인지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취업여성이 가족 내에서 기여한다고 인지하는 정도나 보유하는 자원에 대한 인지 정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측면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본인과 가족 전체의 월평균소득 수준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자신의 자원평가 인지가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결과를 볼 때 계량화된 자원의 양적 정도보다 부부 각자가 가진 자원의 기여 정도에 대한 자기 지각과 같은 인지적 측면의 영향력이 부부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모두 가정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능력껏 공헌하고,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며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는 서로의 기여와 헌신을 충분히 이해하며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과 같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 남편우세형을 기준으로 공동형이나 아내우세형에 성역할 가치관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집단 간 성역할태도 차이 분석과 회귀분석을 종합해볼 때 공동형이 성고정관념이나 남성 및 여성 역할의 근대적 태도가 높으며 이들이 부부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적이고 동등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남편우세형이나 아내우세형의 경우 부부 중 한쪽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에 불만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성역할 태도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부부 모두에게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부부들이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이나 역할 수행 등에서 특정 영역을 성별로 분리하기보다는 부부가 공유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되도록 하는 개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아내의 경제적 자원의 기여도 인지와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가 서울 및 경기 지역이고 자녀양육기 취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 대상이나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기혼 남성이나 부부대상 쌍 연구를 수행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으로 경제적 자원 기여도 인지, 성역할태도 외에도 심리적·개인적·애정적 변인을 추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리 내적 변인들을 추가한다면 더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 파악과 부부권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의 질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부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1)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사무직·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강기정(1999).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강현덕(2005). 부부의 권력유형, 결혼만족도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 차이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공미혜·오세자(2010). 국제결혼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2, 95-120.
- 5) 김민녀·채규만(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6) 김소영·진미정(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합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5), 1-19.
- 7) 김영혜(2004). 유배우자 노인의 성역할 태도, 가사노동분담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김영미·류연규(2016). 남녀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사회과학연구, 32, 271-299.
- 9) 김현진(2019). 아내의 경제적 기여도 인지와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0) 문숙재·조성은(1993). 구매의사결정시 가족의 역할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93-106.
- 11) 박미금·계선자(1994).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06-117.
- 12) 박은아·이정우(2005).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
- 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97-215.
- 13) 박혜진(2006). 기혼여성 취업 소득의 가구 내 집행과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손현숙(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대구시 거주 30~40대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35-46.
- 15) 신호정(2000). 여성 흡연자의 흡연 욕구 및 성역할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윤숙현·문숙재(1986). 가정관리의 체계론적 접근을 위한 시도-구매의사결정과 부부역할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9-24.
- 17)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18) 이명신·김유순(2016). 부부권력, 변화주장, 갈등해결 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2), 179-213.
- 19) 이성희·윤지영(2018). 기혼여성의 인력개발과 카텍시스. 여성연구, 167-191.
- 20) 이정우·장병욱(1987).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77-194.
- 21) 이정우·정진희(1998).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도시 중년기 주부의 의사결정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2), 53-65.
- 22) 이정은(2012).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이철인(2010). 부부 성역할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 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4) 이혜경(1986). 부부 권력에 따른 결혼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이회정(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 (1), 95-105.
- 26) 임유경(2007). 기혼여성의 '경제적 권한'에 대한 연구: 부부관계 내 '경제적 권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장선녀(2009). 부부사이의 자원과 권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전혜성 · 서미아(2012). 중년기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49-357.
- 29) 정소영(2018). 맞벌이 부부의 권력구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0)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7(1), 91-115.
- 31) 조희금 · 서지원(2009). 맞벌이 가정의 일 · 가정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자녀 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 13(1), 61-81.
- 32) 통계청(2016). 사회조사. 통계청.
- 33) 홍주연(2017). 성역할 태도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적응의 조절효과: 재미 한국인 이민자 부부 및 동거 연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Bokek-Cohen, Y., Peres, Y., & Kanazawa, S. (2008). Rational choice and evolutionary psychology as explanations for mate selectivity. *Journal of Social, Evolutionary, and Cultural Psychology*, 2(2), 42-55.
- 35) Brezsnayk, M., & Whisman, M. A. (2004). Sexual desire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power.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0(3), 199-217.
- 36) Bulanda, J. R. (2011). Gender, marital power, and marital quality in later life. *Journal of women & aging*, 23(1), 3-22.
- 37) Conroy, A. A. (2014). Marital Infidelity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rural Malawi: A dyadic investiga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3(7), 1303-1314.
- 38) Faulkner, R. A., Davey, M., & Davey, A. (2005). Gender-related predictor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3(1), 61-83.
- 39) Fiske, S. T., & Berdahl, J. (2007). Social power.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2, 678-692.
- 40) Gage, A. J., & Hutchinson, P. L. (2006). Power, control, and intimate partner sexual violence in Haiti.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5(1), 11-24.
- 41) Gray, B., Baucom, D. H., & Hamby, S. L. (1996). Marital power, marital adjustment, and therapy outcom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92-303.
- 42) Hennon, C. B., & Wilson, S. M. (2008). Families in global context: Understanding diversit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amilies in a global context* (p.1-14). New York, US: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 43) Hughes, M. E., & Waite, L. J. (2009). Marital biography and health at mid-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3), 344-358.
- 44) Kaufman, G., & Taniguchi, H. (2006). Gender and marital happiness in later life. *Journal of Family Issues*, 27(6), 735-757.
- 45) Kingsbury, N. M., & Scanzoni, J. (1989). Process power and decision outcomes among dual-career coupl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31-246.

- 46) Kulik, L.(2002). Equality in marriage, marit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preretired and retired men and women in Israel.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83(2), 197-207.
- 47) LeBaron, G., & Roberts, A.(2010). Toward a feminist political economy of capitalism and carcerality.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36(1), 19-44.
- 48) Mason, K. O. & Bumpass, L. L.(1970). U.S. women's sex-role ide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 1212-1219.
- 49) Mistry, R. S., Lowe, E. D., Benner, A. D., & Chien, N.(2008). Expanding the family economic stress model: Insights from a mixed methods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96-209.
- 50) Osmond, M. W. & Martin, P. Y.(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7(4), 744-758.
- 51) Quek, K. M. T., & Knudson-Martin, C.(2008). Reshaping marital power: How dual-career newlywed couples create equality in Singapor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5(3), 511-532.
- 52) Razzouk, N., Seitz, V., & Prodigalidad Calpo, K.(2007). A comparison of consumer decision-making behavior of married and cohabiting couple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4(5), 264-274.
- 53) Rogers, S. J.(2004). Dollars, dependency, and divorce: Four perspectives on the role of wives' inco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1), 59-74.
- 54) Rogers, S. J., & DeBoer, D. D.(2001). Changes in wives' income: effects on marital happiness, psychological well being,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458-472.
- 55) Strauss, G.(1964). Some notes on power equaliz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56) Szinovacz, M. E.(1981). Relationship among marital power measures: A critical review and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2(2), 151-169.
- 57) Tichenor, V.(2005). Maintaining men's dominance: Negotiating identity and power when she earns more. *Sex Roles*, 53(3-4), 191-205.
- 58) Tschann, J. M., Flores, E., Marin, B. V., Pasch, L. A., Baisch, E. M., & Wibbelsman, C. J.(2002). Interparental conflict and risk behaviors among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A cognitive-emotional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4), 373-385.
- 59) Usher-Seriki, K. K., Smith Bynum, M., & Callands, T. A.(2008). Mother-daughter communication about sex and sexual intercourse among middle-to upper-class African American girls. *Journal of Family Issues*, 29(7), 901-917.
- 60) Weigel, D. J., Bennett, K. K., & Ballard-Reisch, D. S.(2006). Influence strategies in marriage: Self and partner links between equity, strategy use,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6(1), 77-95.
- 61) Williams, F. L. & Ness, A. J.(1998). Household activities of men and women and their effect upon perceived sense of control and satisfaction with level of living. *J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22(3), 169-190.

- 62) Wunderer, E., & Schneewind, K. A. (2005). Relationship-specific aspects of the self: The role of implicit relationship theories and their contribution to marital well-being. *The adaptive self: personal continuity and intentional self-development*, 245-261.
- 63) Xu, X., & Lai, S. C. (2002). Resources, gender ideologies, and marital power: The case of Taiwan. *Journal of Family Issues*, 23(2), 209-245.

- 투 고 일 : 2019년 02월 28일
- 심 사 일 : 2019년 03월 24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5월 22일